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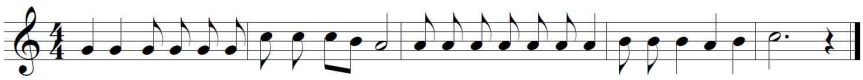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Email : stfranclskc.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사도 2,1-11

[화답송] ····· 시편 104(103),1ㄱㄴ과24ㄱㄷ.29ㄴㄷ-30.31과 34(◎30참조)



(후렴) **주님,당신숨을 보 내 시 - 어 온누리의얼굴을 새롭게하소 서.**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리 새로워지나이다. ◎

[제2독서] ····· 1 코린 12,3ㄷ-7. 12-13
(또는 갈라 5,16ㄴ-25)

[복음환호송] ····· 마태오 28,19.20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복음] ····· 요한 20,19-23
(또는 요한 15,26;16,12-15)

[성가안내]

- 입당성가 [147] 임하소서 성령이여
- 봉헌성가 [215] 영원하신 성부
- 성체성가 [182] 신묘하온 이 영적
- 파견성가 [144] 주의 얼이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성령강림 대축일 부속가 – 성령 송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손님 저희생기 돋우소서.
일할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운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마음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빗나간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5월 23일	이지훈 아네스	정은철 프란치스코	민덕미 안젤라	민덕미 안젤라	양미숙 마리아
5월 30일	박기웅 사도요한	박기목 알버트	민재인 데레사	민재인 데레사	김종선 비비안나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홍은경 골롬바	김영숙 카타리나
제임스 M. 한트/ 마리아 막달라	김경련 율릿다
스텔리 캐스토/가장 불쌍한 연옥 영혼	김경련 율릿다
김영우 요셉, 강견대 마리아 부부	김지영 유스티나
유일영 라파엘	유대건 미카엘
윤용한 요아킴, 김종목 리차드, 조화장 안나	은총의 샘 꾸리아
강세랑 엘리사벳, 강견대 마리아, 김영복 아네스	은총의 샘 꾸리아
생스미사	봉헌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익명
김기수 프란치스코 신부 은경 축하	신윤길 요셉, 신헬렌
지난 설날 성수, 복주머니 준비하신분들	김경련 율릿다
김기례 레지나	익명
이미자 안나	김보현 엘리사벳
김혜진 테레사 (건강 회복 위해)	김지영 유스티나
임금종 마가렛	이경자 율리안나
이서원 마리로사, 안선정 마리안나, 임금종 마가렛	강호영 대건 안드레아

- **오늘 미사후 사목협의회 있습니다.**
- **'성모 성월 – 5월'**

팬데믹으로 '성모의 밤'을 통한 성모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못 드리게 되어, 5월 중 매주 주일 미사 입당 시 간단하게 우리 공동체의 정성을 표현 하고자 합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합시다.

5월 23일 - 성모님께 드리는 성가대의 특송
5월 30일 – 성모님께 드리는 글 – 꾸리아 대표

- **신부님과 함께 하는 성경 묵상 (대면)**

신부님과 함께 대면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각자 묵상한 것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신부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 한달 동안 모집합니다. 일시와 장소는 신청자의 상황을 보고 추후 공지합니다**. 신청:신부님께 <u>이름</u>과 <u>연락처 종이에 적어 주세요.**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성당 풍물패 가칭 <신명> 풍물패 단원을 모집합니다."**

꽹과리, 징, 북, 장구를 배우고 싶거나,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u>박 알버트 부회장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46-201-0175)</u>** 연습할 마땅한 장소를 찾고 있으며 당분간 모임 장소는 뉴저지로 정하였습니다. 일시와 장소는 회원들이 모이대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청년 성서 모임 개강 안내 (Zoom Meeting)**

개강 : 오늘, 5월 23일 오후 7시 시작
범위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복음, 요한 복음
문의 : 김 진섭 야고보 (201-912-7577)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찬미하나이다, 성모 마리아님!

영원하신 성부의 사랑하올 딸이시여 찬미드리나이다.
성자의 공경하올 어머니시여 찬미하나이다.
성령의 충실한 배필이시여 찬미드리나이다.
저의 사랑하올 어머니시며,
주인이시오,
여왕이시여 찬양 드리나이다.

제 기쁨, 제 영광, 제 마음, 제 영혼이시여,
당신은 자비하시니
저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며 저 역시도 당신의 것이옵니다.
아직도 당신의 것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사오나
이제 저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당신께 다 바쳐 드리나이다.
아직도 당신께 속하지 못한 그 무엇이 제안에 남아 있으나,
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주소서.
하느님께 부당한 것은 모두 쳐부수시고 없애셔서
당신 마음에 드는 것만 심고 가꾸소서.

당신의 굳은 신앙을 밝게 비추사
제 마음의 어두움을 거두시고
당신의 깊은 겸손으로 제 오만과 교만함을 누르소서.
당신의 빛으로 방황하는 저를 이끄시고,
당신의 맑은 눈으로 항상 보시어
제 마음이 주님의 현존으로 가득하게 하여주소서.
당신 마음의 불타는 사랑으로
저의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시고
저의 죄 대신으로 당신 성덕의 꽃을 피우시고,
당신 공덕으로 제 부족함을 채워주소서.

지극히 사랑하올 어머니, 성모 마리아님,
예수님과 그분의 뜻을 알려고 하는 당신의 정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게 하여주시고,
주님을 찬미하고 기리려는 당신의 영혼 이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해주소서.
당신처럼 순수하고 열렬한 사랑으로 하느님만을 기리겠나이다.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중에서
- 강 호영 대건 안드레아 발췌 -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주일 오전 8:30 ~ 8:50 지하 성당 고백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및 견진교리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 주일 10:50am – 12:00pm, 클레어 룸**

[단체모임 안내] : 추후 공지 때까지 중단합니다.

요셉회	2n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모회	2nd 주일 11:00am	교육관 4
연령회	2nd 주일 11:00am	Lower Church
꾸리아	3rd 주일 11:00am	Lower Church
울뜨레야	1st 주일 11:00am	교육관 4
양업회	3r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령기도회	매주 화 06:00pm-07:30pm	Conf. Rm(2F)
학부모회	1st 주일 11:00am	교육관 3
예수성가정회 (FYMNY)	4th 주일 11:00am	Francis Room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김순한(루시아)
전마지(마가렛)
이종환(토마스 아퀴나스)
이정주(소화데레사)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이경봉 (요셉그레고리오)
김옥지(아가다)
이재오(클레멘트)
김동희(헬레나)
김용기(요셉)
고종호(마태오)
홍봉운(바오로)
정영도
노의선

주님 승천 대축일 복음 묵상

(사도 2,1-11/1 코린 12,3ㄷ-7. 12-13/요한 20,19-23)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영'은 하느님의 입김이며, 하느님의 현존을 표시합니다(창세 2,7; 욥 33,4 참조). 또한 신약 성경에서 성령께서는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마태 3,13-17 참조), 오늘 제1독서에서는 '불꽃 모양의 혀'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로마 5,5 참조),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하시며(로마 7,6 참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갈라 3,29 참조), 죄로 죽은 인간을 다시 살리시는 분(로마 8,10-11 참조)이십니다. 또한 한 세례를 통하여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에페 4,3-6 참조). 성령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숨을 쉬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보다 평화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두려움에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에 서시며 예수님께서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인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곧 용서입니다. 스승을 버리고 떠난 죄책감 속에 있는 제자들에 대한 용서, 두려움에 서로를 의심하고 이웃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용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데 대한 용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청하고 서로 용서한다면, 성령의 은총으로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는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아 봅시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덕을 완성하여 주님께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칠은은 지혜, 통찰, 식견, 용기, 지식, 공경 그리고 경외입니다.

- 신우식 토마스 신부 -

21년 5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복음화 지향 : 금융계

금융 질서를 정립하여 시민들을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게 금융 책임자들이 정부와 협력하도록 기도합시다.

Nest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NEW WONJO 원조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CAMPUS Education
Learn English with US
유학생 환영
212-868-9777 (한국어 상담)
koreanny@studyoncampus.com
410 8th Ave. 5 FL New York

광고주를 찾습니다